

Open 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281 | 2025년 09월

ARISE AFRICA

어라이즈 아프리카

위기에 처한 교회들의 손을 잡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 이사야 60:1-3 -

칼럼

- 박해속에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

어라이즈 아프리카

- 공포에서 치유로
-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 위기에 처한 교회를 위한 기도

어라이즈 아프리카 청원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Heart To Heart

-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
- IDOP (국제기도의 날)

- 2025년 WWL 광주 지역설명회 후기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박해와 선교현장 - 니제르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5년 09월호 | 통권 281호 |
등록번호-증량,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업)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조남준, 임훈희, 김다운
민태홍, 유진영, 민찬양, 신예은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한로이, 송례아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섯별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차

03 칼럼 - 박해속에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

04 어라이즈 아프리카

- 공포에서 치유로
-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 위기에 처한 교회를 위한 기도

10 어라이즈 아프리카 청원

14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18 Heart To Heart

-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
- IDOP (국제기도의 날)
- 2025년 WWL 광주 지역설명회 후기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22 박해와 선교현장 - 니제르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박해속에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

김택호 목사 (서울나눔과섬김교회)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른 교회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서 신앙의 극심한 양극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지나치게 편안하고 부유한 교회가, 다른 한쪽에는 극심한 가난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전 세계 3억 8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4,476명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7,679건의 교회와 기독교 시설이 공격당했으며, 20만 명이 넘는 신자가 피신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아픈 지체입니다.

약함과 박해 속에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후12:10)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박해받는 교회는 바로 그 약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생생히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성공과 번영신학을 내려놓고, 약함과 박해신학을 붙들어야 합니다. 박해신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난과 박해를 교회의 본질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전 세계 교회의 연대와 회복을 촉구합니다.

약함 속에 드러난 연대의 실제

오늘도 세계 곳곳의 박해받는 교회는 약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리아 내전과 IS의 박해로 수많은 기독교인이 난민이 되

어 유럽에 정착했습니다. 독일의 한 루터교회는 ‘난민 현대 프로그램’을 열어 예배당을 개방하고, 시리아 난민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두 공동체는 매달 연합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난민교회는 독일 교회에 중동식 찬양과 기도 방식을 소개했고, 독일 교회는 법률·언어·생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실감하는 교제가 형성된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12:26-27)

우리가 걸어야 할 제자도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한다는 것은 잠시의 동정이나 일시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와 나눔, 그리고 사랑의 연대를 통해 서로를 세우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한 몸 된 지체’로 여기고, 자기부인과 희생으로 그들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은 “갇힌 자를 함께 갇힌 것 같이”(히13:3) 기억하고 중보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상황과 문화를 배우고, 단순한 뉴스로만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로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중보해야 합니다. 연대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호 돌봄입니다. 부요한 교회는 각성하고, 박해받는 교회는 위로를 받으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박해받는 교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게 하시고, 내 풍요와 자유를 그들의 필요를 위해 흘려보내게 하소서. 주님의 몸이 하나 되기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공포에서 치유로

리프카투가 납치되어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그녀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본 기사에는 성폭력에 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프카투가 겪은 고난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상처를 남겼지만,
여러분의 후원으로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리프카투*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자들이 차례차례, 잔인하고 반복적으로 그녀를 강간하는 동안 말입니다.

단지 4주 전, 그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인을 박해하려는 이슬람 극단주의단체인 풀라니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되고 감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리프카투가 겪은 고통은 너무 참혹하여 그 모든 내용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 공격은 폭력적이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인간성과 존엄을 짓밟는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풀라니 남편 자마이* 목사에게 돌아왔지만, 그녀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자마이 목사는 슬픔 속에서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알고 결혼한 아내가 맞나?”

어두운 슬픔의 터널 속에서 헤메던 그녀였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 덕분에 이제는 오픈도어가 운영하는 트라우마 치유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했어요”

“리프카투가 처음 왔을 때,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트라우마 치료사 아세베*는 말합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했죠.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치료를 통해 리프카투는 점차 자신의 감정을 치유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서와 고통에 대해 나누는 치유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할 것은, 제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순간이에요.” 리프카투는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고통을 종이에 적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태웠어요. 제 고통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예전엔 ‘이 풀라니 무장세력들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리프카투가 풀려난 지 1년 후, 그녀는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아이를 “악한 아이”라 부르며, 풀라니 무장세력의 자녀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당했습니다. 리프카투는 딸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치유를 통해 딸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고통을 아세요.”

자마이 목사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이를 품에 안고 미소 짓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리프카투는 이제 예전처럼 울지 않아요. 전엔 자유롭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어요.”

지난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1,700명 이상의 기독교인 여성들이 성폭력이나 성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여성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은 잔혹한 박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여러 지역의 트라우마 센터들을 통해 수천 명의 여성들이 고통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신변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 리프카투의 정서적, 영적, 육체적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가정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 여러분의 후원으로 세워진 트라우마 치유 센터가 매년 수천 명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작년 한 해 동안 믿음을 이유로 성폭력을 당한 1,700명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분들의 깊은 상처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리프카투와 트라우마 치료사 아세베





ARISE AFRICA

어라이즈 아프리카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니제르에 있는 한 마을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 머물고 있던 하쿠리*와 남편은 세 자녀와 함께 몸을 낮추고 숨었습니다.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곳 저곳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쿠리와 그녀의 가족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뛰쳐나와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남자들을 향해서만 총을 쏘았어요.” 하쿠리는 말합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학교 건물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남자를 발견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쿠리는 아들들에게 여자 옷을 입혀 도망쳤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살해되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같이 가면 위험할 것이라고 자신은 따로 도망치겠다고 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쿠리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살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긴 여정을 거쳐 안전한 곳에 도착했지만, 가장이자 보

호자였던 남편을 잃은 하쿠리와 자녀들은 집도, 먹을 것도 없는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우리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쿠리는 말했습니다. “떨감도, 물도, 음식도 사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하쿠리와 자녀들은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치유가 시작되다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고, 여러분이 쌀과 고기 등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보내주셨다고 하셨어요,” 하쿠리는 말합니다. 그녀는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들을 통해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트라우마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하쿠리는 말했습니다. “밤낮으로 남편을 그리워하며 슬퍼했죠. 그런데 지금은 제 삶에 변화가 생겼어요. 더 이상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슬퍼하면 아이들이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하쿠리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1,6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전례 없는 폭력적인 박해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 니제르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세력을 넓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지역의 교회들은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필요해요,” 하쿠리는 말합니다.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이 땅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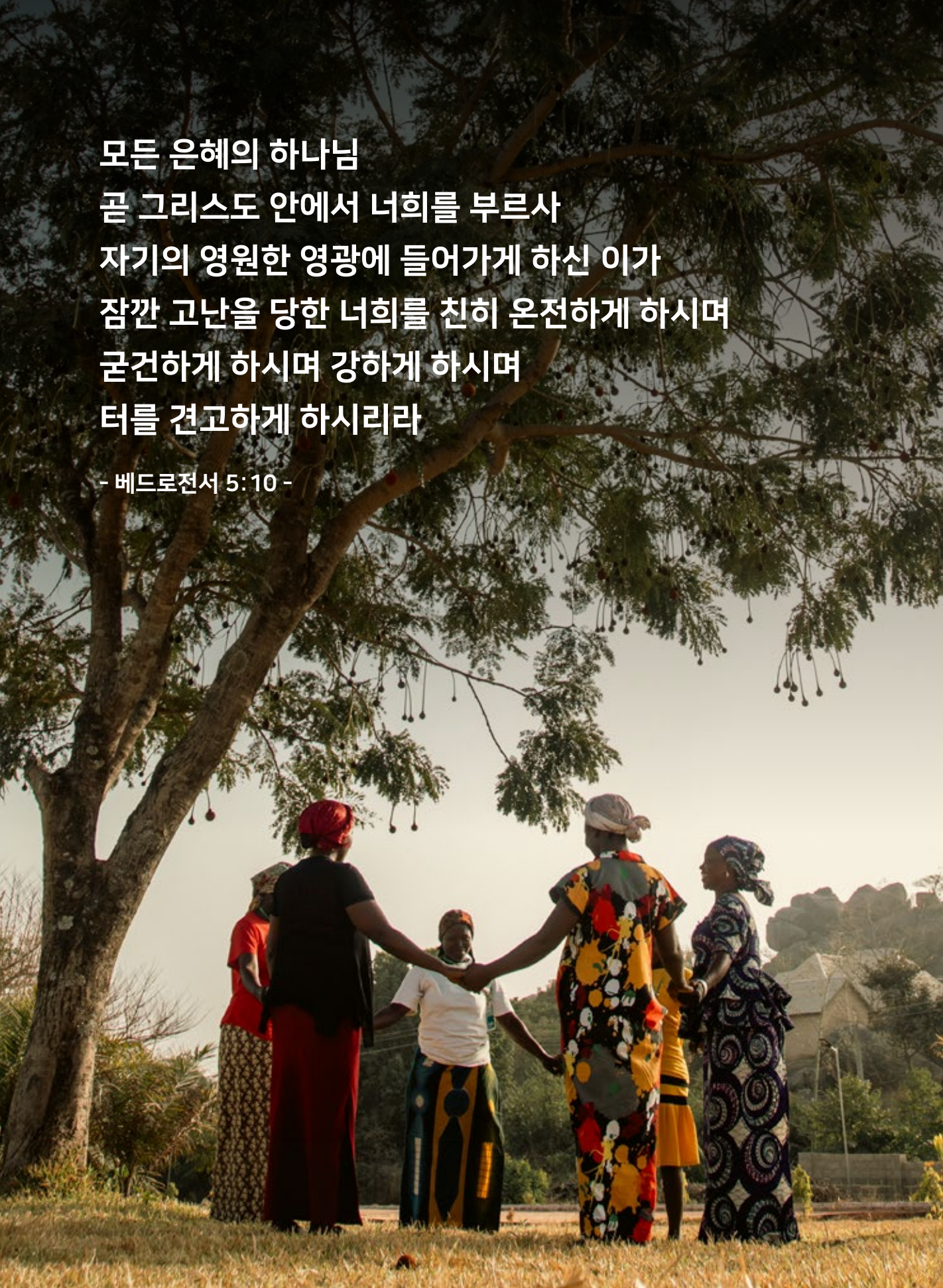


함께 기도해주세요

- 하쿠리와 그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니제르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이 넘쳐 그들이 박해받고 상처 입은 공동체를 잘 돌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극단주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폭력을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 베드로전서 5:10 -



리프카투를 위한 기도

성폭행을 당하고, 버림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 젊은 여인에게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악몽과 같은 일들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 리프카투의 아기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하쿠리를 위한 기도

과부가 되어 자녀들을 혼자 키워가는 하쿠리는 극심한 가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 자녀들이 안전한 곳에 머물며 교육 받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쿠리가 치유를 경험하고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ARISE AFRICA

어라이즈 아프리카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아십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들과 함께해 주세요.
성폭행으로 인해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로해 주세요.
무장 세력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긴 남편들에게 힘을 주세요.
이들의 고통을 곁에서 위로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현지에서 트라우마 치유 센터를 운영하며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픈도어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세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부서진 영혼이 회복되고 위기에 처한
교회가 다시금 굳게 서며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해 주세요.
주님, 이들을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년차 - 폭력을 멈추고, 치유를 시작하라

아프리카에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도어의 조사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심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이 시작된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박해는 심각하고, 오히려 그 방식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성별에 따라 다른 유형의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성폭력이, 남성에게는 생계 수단을 빼앗는 형태의 폭력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공격입니다.

오픈도어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결코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회복 사역에 동참할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

‘성별에 따른 폭력(gendered violence)’이라는 표현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다른 방식으로 공격당합니다. 오픈도어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에 따르면, 최소 1,7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중 80%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극히 보수적인 추정치이며 많은 경우,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여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최소 7,100개 이상의 기독교인 소유 사업체가 공격받거나 폐쇄되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가정을 부양하는 생계 수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격은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들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494,901

2024년 한 해 동안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의 수

545,098

2024년 한 해 동안 오픈도어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현지 기독교인들의 수

890,000

2년(2023~2024) 간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누적 합계

2,720,000

2024년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을 통해
직·간접적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총합

우리의 비전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을 통해 오픈도어는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자비한 폭력을 전 세계가 인지하여 이에 맞서 행동하도록 하고,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회복하여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번 캠페인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심각한 박해를 겪은 4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약 545,098명을 직접 지원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로, 캠페인 시작 이후 누적 약 89만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전부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직접 도움을 받은 한 사람이 그 도움을 가족과 지역사회에 나누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 케어 훈련을 받은 목회자는 자신의 교회에서 20명 이상의 성도에게 치유 사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량 키트를 받은 부모는 평균적으로 7명의 가족 구성원을 부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2023년에는 약 170만 명, 2024년에는 약 272만 명이 오픈도어를 통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괄목할 만한 결과이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벌어지는 박해는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심화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다년간의 캠페인이 끝날 때 오픈도어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모든 가정이 영적·육체적·정서적 지원을 받는다.
- 전 세계 교회가 깨어나 하나 되어 기도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한다.
- 언론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폭력의 이야기를 지속적이고 신실하게 전한다.
-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영향력 있는 주체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법치 강화를 위해 행동에 나선다.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 3년 차인 올해, 우리는 폭력으로 상처 입은 기독교인들에게 치유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교회들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여, 보호·정의·회복을 추구하는 아프리카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폭력과 박해에 직면한 모든 가정이 혼자가 아님을 알고, 오픈도어선교회가 실질적 지원과 장기적인 영적 돌봄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전은 성령의 역사와 아프리카 교회의 리더십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특별함은 아프리카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연결하고, 문화·언어·지리의 장벽을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100만 건의 청원을 모으겠다는 사명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함께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교회들이 위축되지 않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성경적 용기와 같은 담대함을 갖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 위 수치는 직접 및 간접 수혜자를 모두 포함한 추정치이며, 각 직접 수혜자당 가족·교회 구성원 등 간접 수혜자 수를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오픈도어의 활동과 계획

오픈도어는 1990년대 초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성경 훈련부터 사회·경제적 지원, 트라우마 치유, 교육 및 생계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역을 통해 54만 5천 명 이상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전했습니다.

오픈도어는 현장 사역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황폐하게 만든 폭력과 그로 인한 대규모 난민 사태는 장기적인 돌봄뿐 아니라 긴급구호, 식량 지원, 트라우마 치유 등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오픈도어선교회는 나이지리아의 두 주(州)를 사례로 삼아 문제의 심각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합 행동'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100만 건의 청원을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폭력에 전 세계가 관심 갖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폭력을 멈추고, 치유를 시작합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교회와 함께
폭력적인 박해에 맞서세요.

청원신청

지금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을 비롯한 1,600만 명이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원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국제 사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보호: 무장 세력의 무분별한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것

정의: 폭력을 자행한 이들을 반드시 기소하고, 정의를 실현할 것

회복: 고통받는 피해자들과 공동체를 위로하고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청원 신청하기]

오픈도어는 이 행동 촉구문을

2026년 말에 아프리카연합(the African Union)과 유엔, 기타 국제 기구 및 세계 각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후원해주세요

- 5만원: 극심한 박해를 겪은 한 그리스도인에게 트라우마 치료를 제공합니다.
- 8만원: 아프리카의 네 명의 신자에게 한 달간 음식, 주거, 의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12만원: 박해받는 한 신자가 사업을 시작하고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후원 방법

한국오픈도어 자동이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어라이즈 아프리카



[자동이체 신청하기]

일시 후원 (한국오픈도어 계좌 입금)

우리은행 1005-701-884976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입금 시 입금자 명에 '어라이즈 아프리카'를 기록해 주세요.

한국오픈도어 문의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기도해주세요

- 리프카투와 하쿠리의 믿음과 용기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폭력적인 박해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수백만 그리스도인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회복을 간구합니다.
- 전 세계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깨닫고, 지도자들이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도록 기도합니다.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특별 기도 요청

지난 6월, 나이지리아 베누에(Benue) 주 예레와타(Yelewata) 마을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풀라니(Fulani)의 공격으로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9,000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풀라니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향해 폭력을 자행해왔습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 일부 신자들이 일터를 지키기 위해 본인의 가게나 상점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60세 여성 테세 매튜(Tese Matthew)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게에서 잠을 자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사람과 물건이 있는 채로 그 가게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31세 농부 데니스 놈수(Dennis Nomsoo)는 폭력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밤을 지낼 예정이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습격으로 5명의 마을 사람들이 살해 당했었기 때문에 가족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슬픔은 찾아왔습니다. 그날 그의 할아버지가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데니스는 대규모 폭력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우리는 공격이 자행된 광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시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게 안에서 불에 타 죽었고, 또 다른 이들은 가게 밖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가게 밖으로 도망치다가 무장 세력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고 그 후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데니스와 테세, 그리고 수천 명의 주민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마을을 떠났습니다. 공격 직후,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 버추(Virtue)*가 이 피난민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을지 살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배가 고파요. 누구에게든 ‘지금 가



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모두 ‘먹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픈도어의 현지 사역자들은 가장 도움이 절박한 300가정에 긴급 구호 식량을 전달했습니다. 각 구호 꾸러미에는 옥수수 80kg, 쌀 25kg, 콩 25kg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호 식량을 받은 데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과도 나눠 먹겠습니다.”

테세 매튜 역시 감사를 전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 것도 없어 굶주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음식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버추는 이번 지원이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임시 피난민 캠프와 같은 곳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현지 당국의 부패와 탐욕으로 인해 긴급구호가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톡톡’(간이 택시) 운전을 하는 한 주민은 버추에게, 캠프 안에서 부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버추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운전기사는 캠프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의 이모

도 피난민으로, 캠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부패로 인해 피난민들이 식량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당신들은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식량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쁘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로 마련된 이번 식량 꾸러미는 모든 것을 잃은 성도들의 생명을 실제로 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필요

피난민 캠프는 버려진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건물 안은 비좁아 잠자리가 매우 열악합니다. 캠프는 구조상 여성과 어린 자녀들은 함께 지내고, 남성과 청소년들은 따로 생활하도록 되어 있어 가족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잃었고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버추는 이곳의 기독교인들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유와 같은 심리·사회적 돌봄이 절실합니다. 구호 물품을 전달할 때도,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웃음도 노래도 모두 없어



버렸습니다. 식량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 기뻐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슬픔에 찬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끔찍한 폭력을 겪은 후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거나 가족을 잃지 않은 사람들조차 깊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버추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생계 수단도 잃었습니다.”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들은 긴급히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이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식량은 바닥날 것입니다. 배고픔과 함께 정신적 트라우마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들이 신앙을 잃고 믿음에서 떠나버릴 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버추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

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일을 막지 않으셨을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이곳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9,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식량과 옷, 담요 같은 생활 필수품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버추처럼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이들에게 즉각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과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테세 매튜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평화를 되찾고 고향으로 돌아가 생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데니스도 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레와타를 위해, 베누에 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데니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하십니다. 저는 그분을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이 300가정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오픈도어는 앞으로도 이 성도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데니스와 테세,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 방법

한국오픈도어 자동이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아프리카



[자동이체 신청하기]

일시 후원 (한국오픈도어 계좌 입금)

우리은행 1005-701-884976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입금 시 입금자 명에 '긴급 구호'를 기록해 주세요.

한국오픈도어 문의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

박해받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용사를 세웁니다!

기도학교의 목적

오픈도어의 핵심가치로 무장한 기도용사 30명을 세워 전 세계 고난받는 교회를 위한 지역 기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훈련합니다.

-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와 선교적 연대**
- 오픈도어 사역현장과 **선교전략의 깊은 이해**
- **브라더 앤드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의 부르심

모집 대상

오픈도어 기도운동에 헌신할 **기도용사 30명**

일정 안내

2025년 9월 9일 ~ 11월 25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20분에서 9시 30분

(10월 7일, 11월 11일은 기도회 인도 실습 및 휴식)

날짜	핵심 주제	사역 이해
9월 9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One Million Prayer
9월 16일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Arise Africa
9월 23일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Deaf Community
9월 30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1)	Displaced People
10월 7일	추석 연휴 / 기도회 인도 실습 1	
10월 14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Secret Believers
10월 21일	우리는 믿음으로 사역한다	Project Pearl
10월 28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World Watch List
11월 4일	하나님의 밀수꾼 (2)	Persecuted Woman
11월 11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SSTS / IPM / SED
11월 18일	휴식 / 기도회 인도 실습 2	
11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 (3)	오픈도어 선교전략 이해

장소 및 방식

- **장소:** 오픈도어선교회 사무실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01호)
- **방식:** 현장 참여 + 온라인 강의 병행
- **내용:** 강의 + 기도회 인도 실습 + 중보기도

등록비

5만원 (교재 및 실습자료 포함,
수익금은 박해지역 사역 후원에 사용됩니다)

문의 및 신청

QR코드를 통해
신청하기

- 이메일: odsk@oepnddoors.or.kr
- 전화: 02-596-3171
- 팩스: 02-594-3171
- 신청 마감: 선착순 30명!



**"우리는 고난 받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지금,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IDOP(국제기도의 날)

2025년 11월 2일,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IDOP)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 시편46:1 -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홍수와 산불, 지진과 전염병이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전 세계 3억 8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인과 폭력, 차별과 따돌림, 납치와 성폭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환난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996년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매년 11월 첫째 주를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IDOP: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로 정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마음을 모아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제기도의 날은 올해로 어느덧 30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이 기도운동을 함께 하는 중요한 파트

너입니다. 오픈도어 설립자인 브라더 앤드류(Brother Andrew)는 1997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에서 박해 받는 형제자매들을 섬긴 것을 인정 받아 종교자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수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저희는 박해 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하도록 독려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로 그들의 고난에 함께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2025년 11월 2일 국제기도의 날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참가 안내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opendoors.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596-3171, 임훈희간사



2025 WWL 광주지역 순회발표



지난 7월 17일(목), 광주 봉선중앙교회에서 WWL 광주 지역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을 광주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알리고 박해 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설명회는 지난 3월 인천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 진행되었고, 지난 달에는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원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난받는 교회와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원주 발표회에 참석하셔서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응답해 주세요.

광주 지역설명회 참가자 후기

광주 봉선중앙교회에서 열린 오픈도어 지역 설명회에 참석한 그 날, 저는 한순간도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3,000명의 아이들에게 단 15개의 화장실만 허락된 현실, 그곳에서 납치되고 성폭행당하는 수많은 소녀들의 이야기는 그저 먼 나라 뉴스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레아 샤리브라는 14살의 소녀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장 이슬람 세력인 풀라니 목동에게 납치된 여학생 100명 중, 끝까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겠다고 “나는 여전히 기독교인입니다”라고 고

백한 단 한 명. 그녀는 우두머리와 강제결혼을 당했고, 자녀를 낳고 또 다른 결혼을 강요받으며 7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끝으로 소식이 끊긴 그녀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오픈도어가 감당하는 사역은 단지 후원이나 구호 차원이 아닌, 복음으로 회복되는 생명의 이야기임을 느꼈습니다. 고통의 땅에서 회복의 증인이 된 자들의 이야기는, 말씀이 씨앗 되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 봉선중앙교회 홍주혜 집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남의 축복을 늘 경험하고 산다. 이번 오픈도어선교회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심을 느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의 위기를 겪는 나라들이 많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그 많은 성경책을 보급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어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었다.

기독교 박해 국가 1위가 북한임을 보면서 정말 한 민족으로서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싶었다. 저들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오픈도어선교회를 사용하신 것 같다.

마지막에 추수할 일꾼이 적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셔서 그런지 부족한 내게 요즘 새벽에 눈물을 주시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어쩌면 나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오픈도어선교회를 알게 하신 것 같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 봉선중앙교회 오향연 집사

* 지면 제약으로 축약하여 기재하였습니다.

WWL 원주 순회 발표에 초대합니다

내용: 1) 전세계 박해동향 2) 어린이 박해지도 3) 오픈도어 기도용사

일시: 9월 25일(목) 오전 10:30 ~ 12:00

장소: 원주성결교회 (정운민 담임목사)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초교길 42-5

Tel: 033) 742 - 5921

믿음과 믿음이 이어지는 또 다른 은혜의 자리,
원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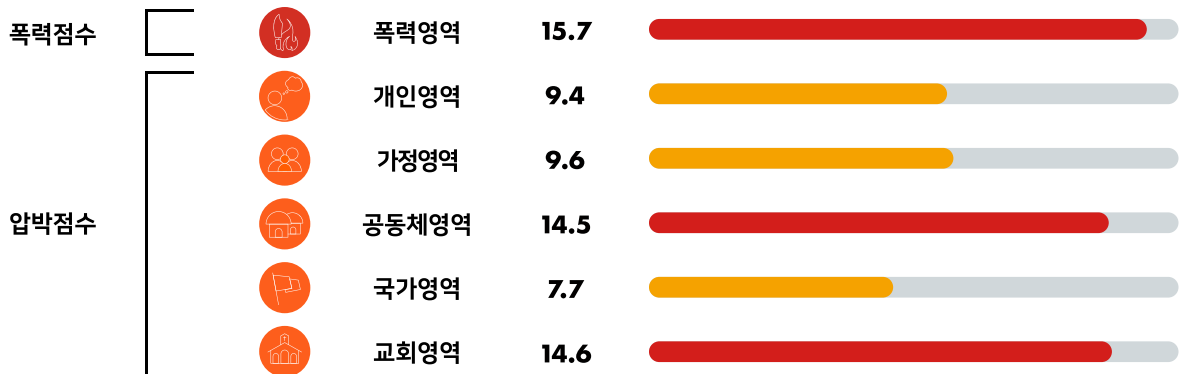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수

28위

니제르 (NIGER)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니제르에서 기독교인들의 처지는 2023년 7월 쿠데타 이후 크게 악화되었다. 이번 쿠데타는 기독교 공동체에 극심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알-순나 와 자마아(al-Sunnah wa Jama'ah, ASWJ)와 같은 이슬람 무장 단체들은 니제르 내 기독교인들의 삶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들 단체의 지배 지역에서는 기독교 모임이 심각하게 제한되며, 공동 예배조차 폭력 위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장 단체들은 빈번한 공격과 납치에 관여하고 있어, 해당 지역 기독교인들의 자유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여전히 가족들로부터 신앙을 포기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니제르 (Niger)

국가 정보

지도자 : 압두라흐마네 티아니 장군

인구 : 28,239,000명

기독교인 수 : 69,200명¹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대통령제 (군부 통치)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69,200	0.2
무슬림	27,011,000	95.7
전통 민속종교	628,000	4.0
불가지론자	39,500	0.1

출처²

니제르는 1960년 독립 이후 지금까지 최소 네 차례의 군사 쿠데타를 겪는 등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역사를 지녀왔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언론의 자유와 정치 및 시민 단체들의 평화로운 집회가 가능해지면서 민주화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기도 했다. 니제르는 말리와 접한 북서부 국경 지역에서는 이슬람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 AQIM)와 서아프리카 통합지하드운동(Movement for Unity and Jihad in West Africa, MUJWA), 나이지리아와 접한 남부 국경 지역에서는 보코하람(Boko Haram)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

국민 대부분은 이슬람을 신봉하며, 주로 티자니아(Tijaniya)나 카디리야(Qadiriya) 수피(Sufi) 계열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슬람 무장세력은 이러한 수피 계

열을 끌고 살라피즘(Salafism)을 퍼뜨리려 하고 있다.

니제르 내 기독교는 주로 미국 선교단체에 의해 전래된 오래된 개신교 및 가톨릭 교회가 중심이다. 그러나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지역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특히 남부 국경 지역에서는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기독교인 여성과 소녀는 특히 납치와 성폭력에 취약하며, 소년들은 무장단체에 강제 징집될 위험에 놓여 있다.

정치 상황은 2023년 7월 또 하나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 불안정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번 쿠데타는 이번 쿠데타는 다당제 민주주의로의 진전을 저지했으며, 지하디스트 폭력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 결과, 니제르의 종교 자유는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 니제르는 2023년 G5 사헬(G5 Sahel)에서 탈퇴했으며, 올해(2024년) 초에는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에서도 탈퇴했다.

전체 내용 확인하기

전체 내용은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opendoor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¹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²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 5일 ☐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